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이해 웨비나 시리즈 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호치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인업소 이동을 통해 살펴보는 하노이 한인거주지의 변화: 쭙화년짱에서 미딩메찌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Nguyen Thuy Giang

21세기에 진입한 이후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 간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한국 역시 그 일환으로 1992년에 베트남과 한국은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증가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서로의 나라로 건너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일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한국은 베트남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인 동시에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다.

한-베 관계의 빛나는 성취와 마찬가지로 많은 한국인들이 꾸준히 베트남에 진출하여 거주하였다. 이에 따라 하노이 내 한국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베트남 내 한국인 공동체와 한국 내 베트남인 공동체는 그 규모와 구성이 나날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의 통계(2019년의 자료)에 따르면 하노이 및 몇 군데 북부지방에 거주중인 한국인들은 81,2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992년에 양국 수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 3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거주 공간의 확대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자료 수집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하노이 내 한국인들의 거주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30년 간 하노이 내 한국인의 주요 거주 공간이 네 구역을 거치며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만한 단계는 '쭙화년짱'에서 '미딩메찌'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 중반인 2006년에 하노이 최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인 '쭙화년짱 아파트단지'로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때마침 베트남 하노이에 진출한 한국인들에게 하노이 내 거주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 쭙화 지역에 새로 조성된 아파트단지는 하노이의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쭙화 아파트단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인들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쭙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예전만큼 많이 볼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인류학 연구방법인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이 지역의 한인업소 현황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딩메찌에 있는 한인업소 밀집도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거주 공간이 이동하게 된 원인과 하노이의 한국인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및 특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집했던 한국인 거주지역 내 한인업소 자료의 결과를 아래 링크의 지도에 정리하였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조사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ogle.com/maps/d/edit?mid=105geKXXGuyehYuqxV8tus1xbELkAdBbU&usp=sharing>
<https://www.google.com/maps/d/edit?mid=1Wgvr8SaxPap6XsrSF24RICw63QbtHD0a&usp=sharing>

일시: 2021년 06월 15일 (화), 10:30-12:30

장소: Zoom Meeting & YouTube